기상청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 1. 23.(금) 11:00 배포 2026. 1. 23.(금) 09:00

2026년 연 기후전망 발표

- 통계 모델 기반에서 대기·해양·해빙·지면이 결합되어 기후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로 전환
- 최근 3년 기록적 기온 및 해수면 온도 상승 유지 전망

□ 기상청(청장 이미선)은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인 연기후예측시스템(DePreSys4[1]) 예측결과와 기후현황 분석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2026년 '연 기후전망'을 발표하였다.

○ 이번 연 기후전망부터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, 과거 관측자료에 기반한 통계 모델에서 벗어나 대기, 해양을 비롯한 해빙, 지면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있는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기반 생산 체계를 적용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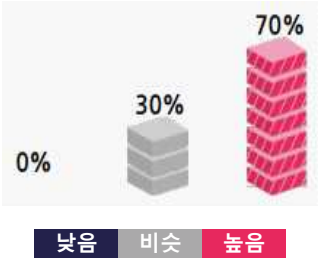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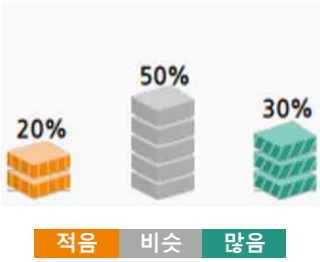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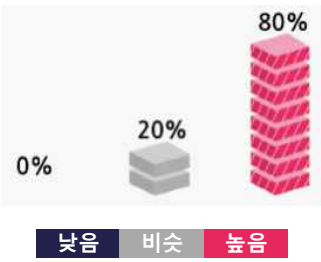
○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지구 기후현상에 대한 해석력과 인과관계 설명력을 한층 강화하고, 기후재난 대비에 필요한 선제적 과학정보를 한 단계 고도화하였다.

□ [전망] 2026년 우리나라(남한) 평균기온은 평년(12.3~12.7 ℃)보다 높을 것으로, 강수량은 평년(1193.2~1444.0 ㎜)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,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(16.4~16.6 ℃)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연 평균기온 평년(1991~2020년) 대비 발생확률 전망(낮음/비슷/높음, %): 0/30/70
연 강수량 평년(1991~2020년) 대비 발생확률 전망(적음/비슷/많음, %): 20/50/30
연 평균 해수면 온도 평년(1991~2020년) 대비 발생확률 전망(낮음/비슷/높음, %): 0/20/80

1) 2025년부터 영국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(DePreSys4; Decadal Prediction System version4)을 도입하여 운영 중임, 대기-해양-지면-해빙 모델이 결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예측을 위해 10개의 앙상블 멤버를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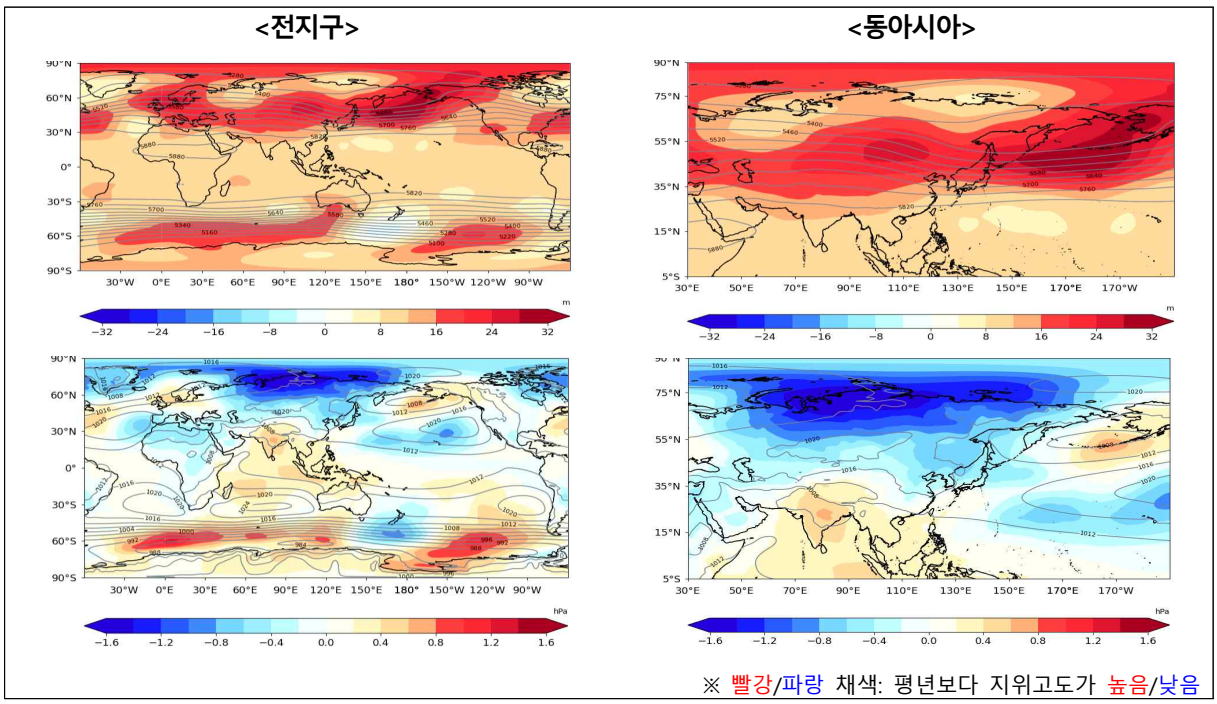
<2026년 우리나라(남한) 연평균기온, 강수량, 해수면 온도 전망>

	평균기온	강수량	해수면 온도
전망			
평년범위	12.3~12.7 ℃	1193.2~1444.0 mm	16.4~16.6 ℃

※ 평년범위: 과거 30년(1991-2020년)간 연도별 30개의 평균값 중 대략적으로 33.33%~66.67%에 해당하는 값

□ **[모델결과] 연기후예측시스템 예측결과, 기온과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고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게** 예측된다.

○ **(기압계)** 북반구는 전체적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는 것으로 예측되며, 특히 유럽~유라시아~동아시아 지역까지 고기압성 순환이 동서 방향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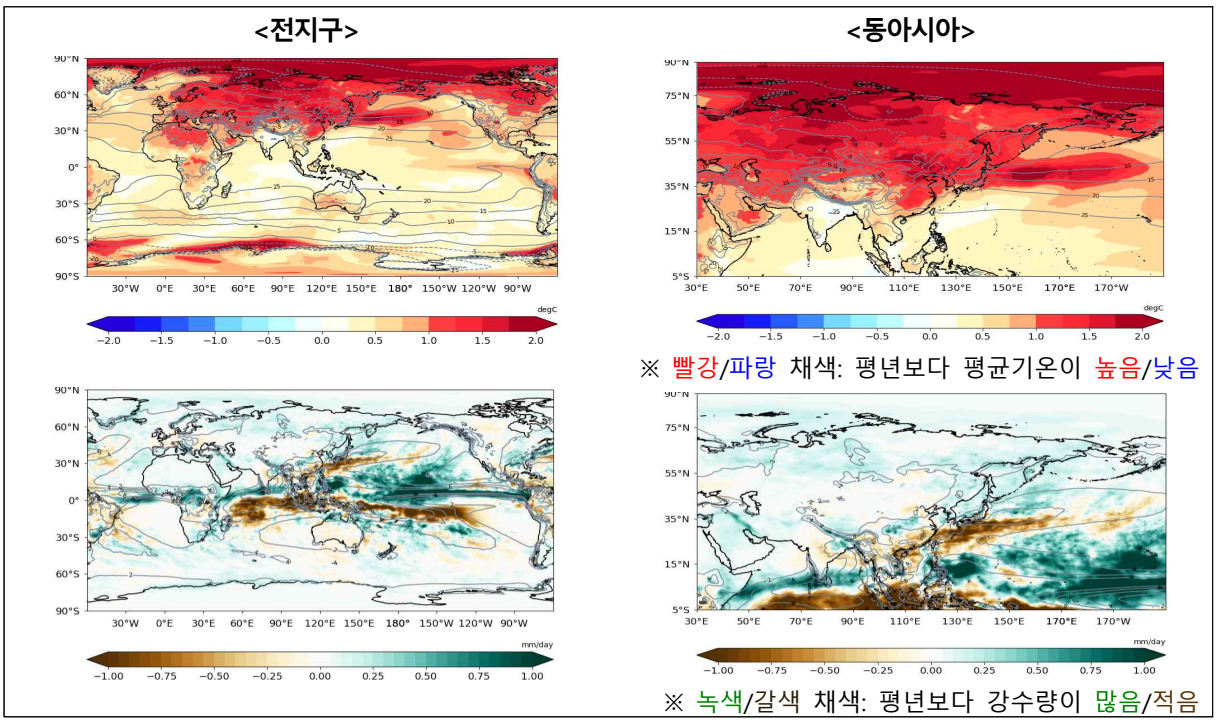
<(상) 500hPa(약 5.5km 상공) 및 (하) 해면기압 지위고도 편차(hPa)>

○ (기온) 상층 상공(약 5.5㎞) 중위도 지역에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기온은 평년보다 **높을 가능성**이 크다.

※ 10개 앙상블 평균 확률(낮음/비슷/높음, %): 0/1/99

○ **(강수량)** 상층(약 5.5㎞) 상공에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한 가운데, **동중국해에서 일본 남쪽까지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을 가능성**이 있으나, **하층(약 1.5㎞) 상공 북서태평양 고기압성 순환 발달, 우리나라 북쪽 저기압 발달(해면기압)이 예측되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**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러나, 차고 건조한 북쪽 저기압과 북서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온난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며 많은 강수가 지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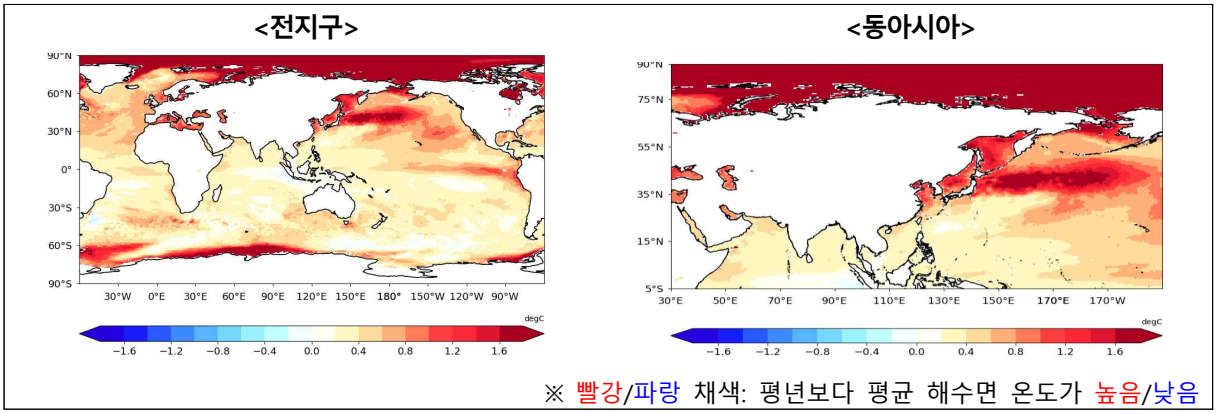
※ 10개 앙상블 평균 확률(적음/비슷/많음, %): 26/37/37



<(상) 연 평균기온 편차(℃) 및 (하) 연 강수량 편차(mm/day)>

○ **(해수면 온도)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**에서 **해수면 온도**는 **평년보다 높을 가능성**이 크다.

※ 10개 앙상블 평균 확률(낮음/비슷/높음, %): 0/1/99



<연 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(℃)>

□ **[기후분석 결과] 지난 해 전지구 해양 열용량**(수심 약 2㎞ 이내)**이 관측 이래 최고치**(약 306 ZJ[2])**를 기록한 가운데, 현재 북태평양, 대서양, 인도양 및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.**

○ **(기온)** 음의 북태평양 십년주기 진동(-PDO)[3]과 양의 인도양 해수면 온도 변동(+IOB)[4]이 지속되면, 우리나라 남동쪽에 고기압 순환 발달에 기여하고, 양의 대서양 수십년주기 진동(+AMO)[5]은 대기파동으로 우리나라에 고기압성 순환을 강화시켜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.

○ **(강수)** 기온 영향과 달리 음의 북태평양 십년주기 진동(-PDO), 양의 인도양 해수면 온도 변동(+IOB) 및 양의 대서양 수십년주기 진동(+AMO)이 지속되어도 강수량의 증가와 감소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.

○ **(해수면 온도)** 음의 북태평양 십년주기 진동(-PDO)이 지속되면, 쿠로시오 해류 약화에 기여하고, 우리나라 주변 해역으로 유입되는 따뜻한 해류를 강화시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.

□ **이미선 기상청장은 “올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또한 강수량 변동성이 커서 지역별 가뭄,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할**

---

2) ZJ(Zettajoules): 10^{21} J(joules) / 전지구 해양 열용량 자료출처: 미국해양대기청 환경정보센터(NCEI/NOAA)

3) 북태평양 십년주기 진동(PDO): 북태평양 해수면온도가 십년이상 주기로 평년보다 높거나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패턴 (양(음)의 PDO: 북태평양 중심 고수온(저수온), 북태평양 동쪽 저수온(고수온))

4) 인도양 해수면온도 변동(IOB): 인도양 전체적으로 해수면온도가 높거나(+) 낮은(-) 상태로 변화하는 패턴

5) 대서양 수십년주기 진동(AMO): 북대서양 해수면온도가 수십년(약 20~40년) 주기로 평년보다 높거나(+) 낮은(-) 상태로 지속되는 패턴

필요가 있다”라고 강조하면서, “기상청은 **재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강화**하며 **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**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연 기후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**‘기상청 날씨누리 - 기후·기후변화 - 연 기후전망’ 및 기후정보포털*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	책임자	과 장	조경숙 (042-481-7390)
		담당자	사무관	주선영 (042-481-7393)
<공동>	기후과학국 해양기상기후과	책임자	과 장	기미옥 (042-481-7410)
		담당자	사무관	장연수 (042-481-740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